

## 2012년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 6월 CBSI 1.6p 하락한 63.8 기록

- 3개월 연속 CBSI 하락, CBSI 1월 제외하고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  
중견업체 지수가 8.3p 하락해 CBSI 하락 주도 -

- 2012년 6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6p 하락한 63.8을 기록함.
  - 이로써 CBSI는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6.1p 하락)했으며, CBSI가 건설 비수기인 1월(62.3)을 제외하고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CBSI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2010년 3~5월 동안 18.1p가 하락한 이후 25개월만에 처음임.
  - 당초 5월에는 6월 CBSI 전망치가 72.6을 기록해 5월 실적치(65.4)보다 7.2p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6월 실적치는 오히려 전월보다 감소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음.
  - 이는 5.10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지방 주택시장마저 회복세가 꺾이기 시작한 가운데, 5월 초 풍림산업에 이어 6월에도 우림건설, 벽산건설 등이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중견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감이 급증한 때문으로 판단됨.
  - 실제로 6월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8.3p 하락하며 6월 CBSI하락을 주도함.
- 한편, 7월 CBSI 전망치는 6월 실적치 대비 9.9p 상승한 73.7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9.9p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7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6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임.
  -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건설경기 부양책이 포함되었지만 당장 7월 건설경기를 개선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통상 7월에는 혹서기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3개월 연속 하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7월 CBSI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업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해 6월 CBSI 하락을 주도한 반면, 대형, 중소기업 지수는 소폭 상승함.
  - 지난 5월에 전월비 13.7p 하락한 58.3을 기록한 중견업체 지수는 6월에도 전월비 8.3p 하락한 50.0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6월 CBSI 하락을 주도함.

- 지난 5월에 전월비 13.7p 하락한 58.3을 기록한 중견업체 지수는 6월에도 전월비 8.3p 하락한 50.0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6월 CBSI 하락을 주도함.
  - 중견업체 지수가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5월 초 품립산업에 이어 6월에도 우림건설, 벽산건설 등 중견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유동성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편,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소폭(0.6p) 상승한 92.9를 기록했으며, 중소기업 지수도 전월비 3.8p 상승한 45.6을 기록함.
  - 다만, 중소기업 지수는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아직 50선을 밑돌아 체감경기는 여전히 매우 부진한 상황임.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1.7, 91.3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5.5, 73.4를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89.3, 81.9를 기록해 자금조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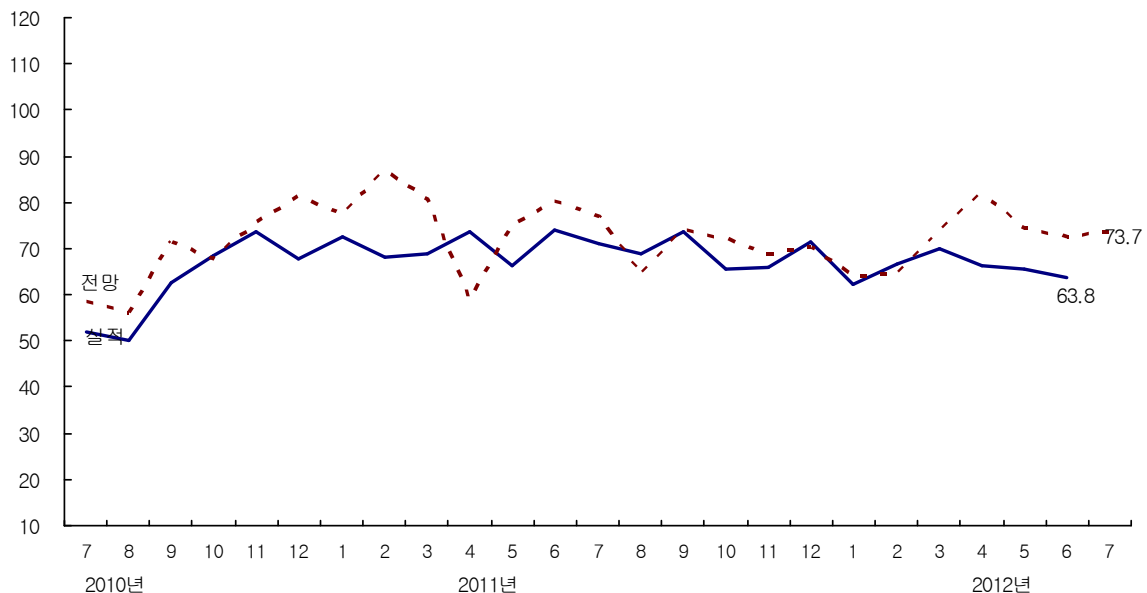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http://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12년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6월 CBSI 1.6p 하락한 63.8 기록  
3개월 연속 CBSI 하락

- 2012년 6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6p 하락한 63.8을 기록함.
  - － 이로써 CBSI는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6.1p 하락)했으며, CBSI가 건설비수기인 1월(62.3)을 제외하고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 CBSI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2010년 3~5월 동안 18.1p가 하락한 이후 25개월만에 처음임.
  - － 당초 5월에는 6월 CBSI 전망치가 72.6을 기록해 5월 실적치(65.4)보다 7.2p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6월 실적치는 오히려 전월보다 감소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음.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이는 5.10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지방 주택시장마저 회복세가 꺾이기 시작한 가운데, 5월 초 풍림산업에 이어 6월에도 우림건설, 범양건설, 벽산건설 등이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중견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감이 급증한 때문으로 판단됨.

- 실제로 6월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8.3p 하락하며 6월 CBSI하락을 주도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업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해 6월 CBSI 하락을 주도한 반면, 대형, 중소기업체 지수는 소폭 상승함.
- 지난 5월에 전월비 13.7p 하락한 58.3을 기록한 중견업체 지수는 6월에도 전월비 8.3p 하락한 50.0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6월 CBSI 하락을 주도함.
- 중견업체 지수가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5월 초 풍림산업에 이어 6월에도 우림건설, 벽산건설 등 중견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유동성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편,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소폭(0.6p) 상승한 92.9를 기록했으며, 중견업체 지수도 전월비 3.8p 상승한 45.6을 기록함.
- 다만, 중소기업체 지수는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아직 50선을 밑돌아 체감경기는 여전히 매우 부진한 상황임.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1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8.9	73.8	65.4	66.0	71.6	62.3	66.7	69.9	66.4	65.4	63.8	72.6	73.7
규모 별	대형	76.9	100.0	84.6	84.6	83.3	76.9	92.9	85.7	71.4	92.3	92.9	84.6	107.1
	중견	75.0	73.1	68.0	64.0	68.0	69.6	58.3	68.0	72.0	58.3	50.0	66.7	56.0
	중소	52.6	43.9	40.0	46.4	61.8	36.8	45.6	53.4	54.1	41.8	45.6	65.4	54.5
지역 별	서울	78.4	91.6	74.1	73.9	72.5	73.7	81.4	74.7	74.1	74.9	72.1	75.6	81.9
	지방	54.6	47.5	52.7	53.8	70.1	47.5	46.5	62.5	54.9	53.6	51.0	70.0	60.7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7월 CBSI 전망치는 6월 실적치 대비 9.9p 상승한 73.7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9.9p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7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6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임.
- 최근 건설경기 침체상황 및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가 7월에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데다, 통상 7월에는 혹서기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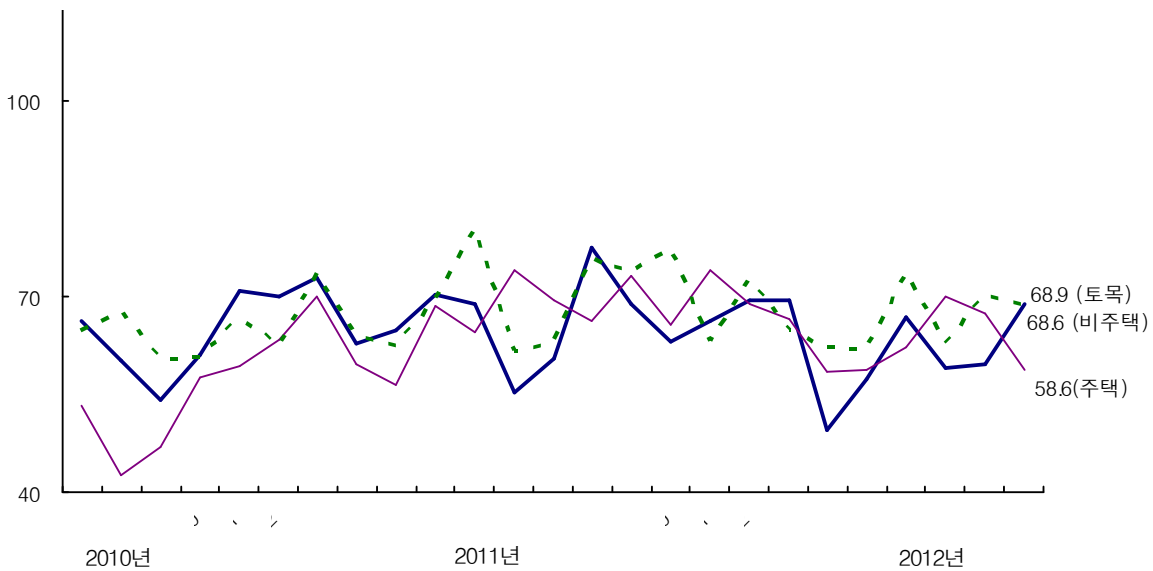
CBSI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3개월 연속 하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7월 CBSI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 6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와 지방업체 지수 모두 전월보다 2.6~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상관 없이 지수가 위축된 모습을 보임.
  -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2.8p 감소한 72.1을 기록, 지난 3월 74.7을 기록한 이후 지수가 네달 연속 70선에 머물렀음.
  -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 보다 2.6p 감소한 51.0으로 3월 62.5를 기록한 이후 지수가 세달 연속 하락한 모습을 보임.

#### 6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보다 0.3p 감소한 72.7

- 6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0.3p 감소한 72.7을 기록, 지난 2~5월까지 4개월 연속 지속된 증가세를 마감함.
  - 물량지수는 지난 1월에 56.6으로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이후 2월과 3월 각각 4.8p, 5.5p 증가했으며, 4월과 5월에도 지수가 각각 0.3p, 5.8p 증가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였음.
  - 지난 2002~2011년까지 총 10년 동안 5~6월간 지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7번 지수가 하락하고 단지 3번만 지수가 상승하였음. 통상 6월의 경우 상반기 말주 및 수주실적을 체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5월보다 지수가 소폭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짐.
  - 다만, 공종별로 토목물량 지수가 전월에 비해 9.3p 상승한데 반해 주택 물량이 전월에 비해 8.9p한 것을 감안, 최근 회복할 것 같았던 주택경기가 다시 하강한데 따른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공종별로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각각 8.9p, 1.7p 하락한 반면, 토목이 전월보다 9.3p 증가한 68.9를 기록해 지수가 일부 개선됨.

###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5월 전월보다 2.5p 하락한 67.5를 기록함. 6월에는 이보다 8.9p 하락, 올들어 두 번째로 낮은 58.6을 기록함. 5.10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한 것은 5월 중순부터 6월 초 사이에 급격히 변화된 유럽발 금융불안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여겨짐.
  - 한편, 비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5월 전월 대비 7.4p 증가한 70.3을 기록해 공종 중 유일하게 70선을 넘어섰으나, 6월에는 전월 대비 1.7p 하락한 68.6을 기록함.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9.3p 증가한, 68.9를 기록함. 올 3월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지수가 60선 미만에 머물렀는데, 이는 대형업체에 편중된 발전소 및 대형 설비 물량 일부를 제외하고 도로와 철도 같은 일반 토목물량이 위축되었기 때문임. 6월 지수 상승 폭이 10p에 가까운 것을 감안, 1~5월 동안 위축되었던 이 일반 토목물량의 발주가 일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대형과 중견업체는 각각 전월 대비 7.7p, 2.3p 하락해 전체 지수하락을 주도한 반면, 중소기업 지수가 전월 대비 10.5p 증가해 전체 지수하락 폭을 일부 완화시킴.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5월에는 전월보다 36.3p 상승한 107.7을 기록함. 6

월에는 100.0을 기록해 지난 5월과 비슷한 물량 상황을 유지함. 공종별로 주택과 비주택 물량이 전월보다 각각 13.7p, 7.1p 감소한 반면, 토목 물량 지수는 16.0p 증가했음.

####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2.7	100.0	56.0	59.6	80.9	60.0
	전망	76.0	114.3	52.2	58.2	88.2	57.1
토목	실적	68.9	92.9	58.3	52.7	76.3	57.1
	전망	79.7	114.3	65.2	55.6	90.7	62.4
주택	실적	58.6	78.6	56.0	38.3	66.1	46.3
	전망	73.4	100.0	66.7	50.0	82.4	58.8
비주택	실적	68.6	92.9	60.0	50.0	75.5	58.0
	전망	73.5	100.0	62.5	54.9	83.3	58.2

주 : 실적은 2012년 6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7월 예측지수임.

-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지난 5월 보다 1.3p 하락한 56.0을 기록함. 대형업체와 마찬가지로 주택과 비주택 물량이 전월보다 각각 12.0p, 2.5p 감소한 반면, 토목 물량 지수는 10.5p 증가했음.
- － 한편,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0.5p 증가한 59.6을 기록해 60선에 근접함. 공종별로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0.5p, 5.8p 증가했음.
- 지역별 물량지수는 서울업체와 전월대비 4.1p 감소한 80.9를, 지방업체는 전월보다 2.5p 증가한 60.0을 기록함.
  -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5월 전월 대비 7.7p 증가한 85.0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한달만에 다시 4.1p 감소해 80.9를 기록함. 토목이 전월보다 12.1p 증가했으나, 주택과 비주택이 각각 13.0p 8.1p 감소하였음.
  - － 한편,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2.5p 증가한 60.0을 기록함. 주택이 전월보다 3.8p 감소했으나,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2.4p, 7.7p 증가하였음.
- 2012년 7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6월 실적치보다 3.3p 증가한 76.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수 전망치가 3개월 연속 80선을 넘었었음. 그러나, 전망지수는 다시 70선 중반으로 하향됨. 여름철 비수기에 대한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된 가운데, 최근 대외경기 불안으로 기대치가 그만큼 낮게 형성된 결과로 판단됨.
- 토목물량지수는 6월보다 10.8p 증가한 79.7을, 주택 물량지수는 6월보다 14.8p 증가한 73.4를, 비주택 물량지수는 4.9p 증가한 73.5로 각각 전망함.
- 공종별로 모두 70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중 토목물량지수가 가장 양호할 것으로 보임.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재비 및 자금조달 상황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1.7, 91.3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5.5, 73.4를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89.3, 81.9를 기록해 자금조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총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금	실적	89.3	107.1	84.6	73.7	93.0	82.9
		전망	86.4	107.1	84.0	64.8	92.4	76.4
	자금조달	실적	81.9	107.1	73.1	62.5	87.6	72.9
		전망	84.7	107.1	80.0	63.6	88.3	77.8
인력	수급	실적	101.7	107.1	103.8	93.0	105.0	96.4
		전망	101.7	107.1	104.0	92.7	105.9	94.7
	인건비	실적	85.5	100.0	92.3	60.7	99.1	64.5
		전망	86.0	100.0	88.0	67.3	101.5	63.1
자재	수급	실적	91.3	100.0	80.8	93.0	90.6	91.9
		전망	89.3	100.0	80.0	87.3	92.3	84.1
	비용	실적	73.4	100.0	68.0	48.2	80.9	60.8
		전망	75.5	100.0	72.0	50.9	86.5	58.2

주 : 실적은 2012년 6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7월 예측지수임.

끝.